

## 97. 비디오 모터 생산 근로자에서 발생한 좌견관절 충돌증후군

성별	여	나이	44세	직종	비디오모터제조업	작업관련성	높음
----	---	----	-----	----	----------	-------	----

1. **개요:** 한OO(여, 44세)은 1988년 2월 1일 J전자(주)에 입사하여 1999년말 이후 카링구공정의 특성검사작업과 외관검사작업을 하였다. 2001년 3월 10일 어깨동통이 있어 치료를 받아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2001년 10월 20일 신규 모터를 생산하면서 1달간 로타-기판을 치구에 끼우고 빼는 작업을 하던 중 2002년 7월 22일 좌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상기 사업장은 비디오 모터 제조업체로 head drum monitor(VCR용 BLDC monitor), ODD용 spindle monitor, 냉장고용 BLDC fan monitor, micro step monitor 등을 제조하고 있다. 상기 근로자는 1988년 2월 1일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1992년 11월까지 납땜작업을 하였고, 1992년 12월 - 1997년 12월 중반 비디오 모터 조립작업(기판에 코어를 감는 공정)을 하였으며, 1997년 말 - 1999년 중반 카링기 공정(로타생산공정) 근무, 1999년 말 - 현재 특성검사공정에서 근무를 하였다. 특성검사공정은 설비기구가 착자기(작업대 기준으로 10cm 높이)와 4개의 소형 모니터로 생산품의 착자를 확인하는 공정이다. 작업방법은 작업대 앞에 앉아서 컨베이어에 검사대상(기판-로타)이 오면 왼손으로 하나를 집어서 착자기의 치구에 넣고 모니터를 이용하여 정상접속을 확인하면 오른손으로 생산품에 펜으로 표식을 한 후 치구에서 왼손으로 기판-로타를 빼서 정상 생산품은 컨베이어에 다시 올리고 불량품은 옆에 있는 별도 케이스에 넣는다. 작업대와 작업의자까지의 거리는 70 cm이었고 작업위치에서 작업컨베이어에 있는 기판-로타를 집을 때 최대 외전 각도는 60도로 측정되었다. 1일 특성검사작업을 통한 1인 기판-로타 생산량은 5,000개의 75%인 3,750개이었다.

3. **의학적 소견:** 한OO은 2001년 3월 10일 어깨 동통이 있어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증상이 호전되었다. 2001년 10월 20일 신규 모터를 생산하면서 1달간 로타-기판과 치구기계의 치구간의 크기가 맞지 않아 작업속도에 맞추어 로타-기판을 치구에 끼우고 빼는 작업으로 어깨 동통을 심하게 느껴서 2001년 11월 20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증상의 호전과 재발이 반복되어 2001년 12월 - 2002년 5월 어깨관절 및 경추 동통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점차 심해졌다. 2002년 7월 2일 J신경외과에서 좌측 어깨 및 경추부 동통, 좌측 어깨운동장애로 진료를 받고, 2002년 7월 22일 좌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급성 외상성 점액낭염 의심으로 진단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이다.

4. **결론:** 한OO은

- ① 좌측 견관절 및 경추부 동통, 좌측 견관절 운동제한으로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으로 진단받았으며,
- ② 작업자세 및 작업동작분석 결과 어깨좌측 어깨 및 경추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 및 공정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